

# 2025년 한국경제 전망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klee@hri.co.kr)

- I. 들어가며
- II. 한국경제 전망
- III. 국내외 리스크 요인
- IV. 결론

# 1

## ■ 국문요약 ■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5년 한국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경제전망, 국내 경제전망, 국내외 리스크 요인

## I. 들어가며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및 글로벌 무역 갈등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U'자형 완만한 회복과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한국경제는 내·외수의 불균형과 높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속에서 매년 위기 때마다 보여주었던 한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 II. 한국경제 전망

2025년 한국경제 전망에 있어서 핵심은 내수 경기 개선세 여부와 외수 경기 호조세의 지속 여부이다. 내수 경기는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부문 등의 개선 여부, 외수 경기는 글로벌 수요 증가 여부와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ICT 경기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전망의 배경

#### (1) 글로벌 경기: 높은 불확실성 속 완만한 개선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중국 등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확대 등의 리스크가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2024년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하며 연착륙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과 일본도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 유로존, 일본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특히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ASEAN-5와 인도 등은 성장 기대가 높으나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해당국 및 주변국 경제는 회복 지연 또는 성장세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멕시코 등 미주 지역 신흥국의 성장세도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수요 확대로 세계 교역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국 경제 둔화와 중국 경제의 부진, 반도체 및 ICT 경기의 둔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과 같은 리스크는 세계 교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전망기관들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2025년 경제전망

| 구분       | IMF(2024.10) |       | OECD(2024.12) |       |
|----------|--------------|-------|---------------|-------|
|          | 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 세계 경제성장률 | 3.2          | 3.2   | 3.2           | 3.3   |
| 선진국      | 1.8          | 1.8   | 1.7           | 1.9   |
| 미국       | 2.8          | 2.2   | 2.8           | 2.4   |
| 유로지역     | 0.8          | 1.2   | 0.8           | 1.3   |
| 일본       | 0.3          | 1.1   | -0.3          | 1.5   |
| 신흥개도국    | 4.2          | 4.2   | 4.4           | 4.4   |
| 중국       | 4.8          | 4.5   | 4.9           | 4.7   |
| 인도       | 7.0          | 6.5   | 6.8           | 6.9   |
| 브라질      | 3.0          | 2.2   | 3.2           | 2.3   |
| 러시아      | 3.6          | 1.3   | 3.9           | 1.1   |
| 세계 교역증가율 | 3.1          | 3.4   | 3.5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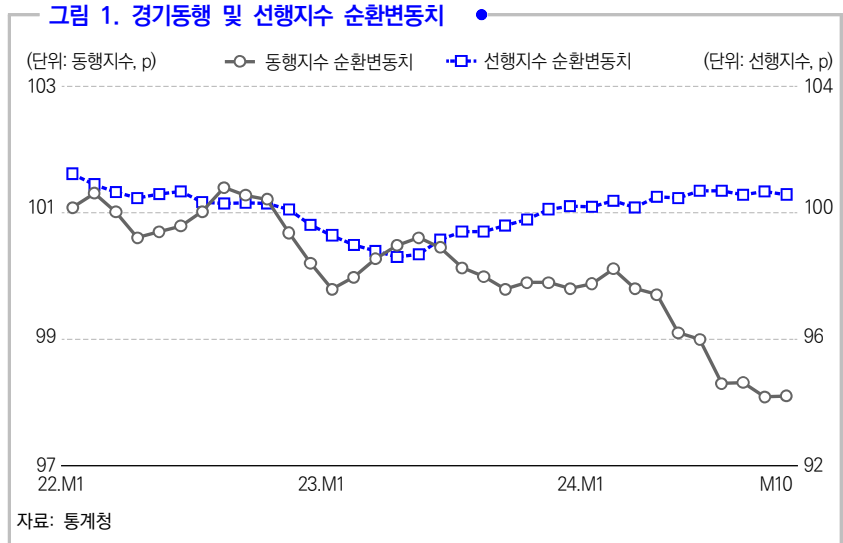
주: OECD의 선진국은 OECD 회원국, 신흥개도국은 비OECD 회원국임  
 자료: IMF, OECD.

## (2) 국내 경기: 전반적인 경기 활력 저하

국내 경제는 지난 2분기 전기비 기준 마이너스 성장( $\Delta 0.2\%$ )을 기록한 후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이 0.1%로 미미한 회복에 그쳐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1p로 전월과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며 경기 저점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래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6p로 지난 7월(100.7p) 이후 개선세 둔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외수 불확실성의 해소와 내수 모멘텀의 확보가 없다면 성장경로를 이탈하여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및 ICT 경기 둔화와 트럼프 2기의 무역 및 관세 정책과 관련된 공약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

문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여력 모두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시점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정도에 따라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자형 장기 불황 우려도 상존한다.



## 2. 국내 경제전망 및 평가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하면, 2025년에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외수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수 경기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7%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 이나마 회복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금융비용의 하락,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점진적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누적된 주택 건설착공 감소,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에 따르는 투자심리 개선,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비ICT 부문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2** 2024년 부문별 경제전망

| 구 분         | 2023년<br>연간 | 2024년 |       |       | 2025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경제성장률 (%)   | 1.4         | 2.8   | 1.5   | 2.1   | 1.5      | 1.8 | 1.7  |
| 민간소비 (%)    | 1.8         | 1.0   | 1.6   | 1.3   | 1.5      | 1.7 | 1.6  |
| 건설투자 (%)    | 1.5         | 0.4   | -3.4  | -1.6  | -3.0     | 0.5 | -1.2 |
| 설비투자 (%)    | 1.1         | -1.8  | 4.1   | 1.1   | 5.3      | 0.1 | 2.7  |
| 수출증가율 (%)   | -7.5        | 9.1   | 7.4   | 8.2   | 4.0      | 1.5 | 2.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 2.8   | 1.8   | 2.3   | 1.8      | 2.1 | 2.0  |
| 실업률(%)      | 2.7         | 3.1   | 2.4   | 2.7   | 3.2      | 2.8 | 3.0  |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4년, 2025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수출은 2024년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5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중성장에 따른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 금리 하락에 따르는 비용 감소, 유가 약세 등으로 물가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주요 산업,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신규 취업자 규모가 축소됨과 동시에 실업률도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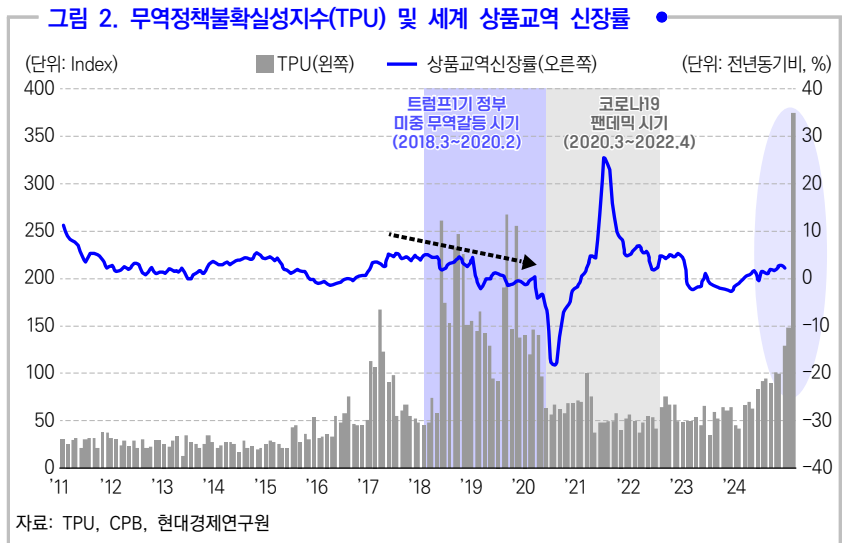
### III. 국내외 리스크 요인

2025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고조되는 외수 불확실성과 내수회복 모멘텀의 부재가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 고조되는 외수 불확실성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 속에 수출이 성장을 이끌어 왔다.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되었고 1년여 넘게 연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축소와 자동차 등 트럼프 2기 제재 관련 산업의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차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갈등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관세 인상을 핵심 정책으로 발표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TPU)는 지난 6월 88.7에서 11월 373.6으로 급등했다. 과거 해당 지수는 오바마 2기 평균 35.0을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무역 갈등기(2018.03~2020.02)에는 평균 161.9를 기록했으며 세계 상품교역 신장률 역시 평균 0.6%에 불과했다. 향후 다시 한번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이는 한국 외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2. 내수 회복 모멘텀의 부재

최근 소비성향이 급락한 가운데 향후 실질 구매력의 반등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상승 추세였으나 2024년 3분기 69.4%를 기록하며 전년동분기인 2023년 3분기의 70.7%보다 1.3%p 하락하였다. 최근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계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신규대출액)도 1월 3.66%에서 10월에 3.37%까지 하락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가계부채 수준 역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소비 심리 개선도 다소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물가상승률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회복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는 'U'자형 완만한 회복과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부재할 경우, 'L'자형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림 3.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IV. 결론

2025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이었던 시기는 불과 다섯 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민간 경제 주체들 역시 내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와 시나리오별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24.12
2.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4.10
3. OECD Economic Outlook, OECD, 2024.12